

지장보살님 서원 배우고 가피입는 도량

서울 인사동에서 꿈에 본 지장상 모셔와

주목받는 지장기도도량 봉화 대원정사

지장보살 영험 유명해요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 235번지에 위치한 비룡산 대원정사. 민가를 법당으로 개조해 만든 토굴인 대원정사는 지장기도를 올린 불자들의 입소문에 요즘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대원정사에 모셔진 지장보살님의 영험을 경험한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얼른 보아 사찰로 여겨지지 않는 대원정사를 유명한 기도도량으로 탈바꿈 시킨 지장보살님이 대원정사로 오게 된 사연은 듣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만든다.

봉화 불타암에서 주야로 정진을 계속하던 대원정사 주지 만덕스님의 꿈속에 한 스님이 나타나 "왜 빨리 날 데려가지 않느냐? 어서 와 날 데려가라. 난 서울에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꿈에서 깬 만덕스님은 꿈 속에서 만났던 스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라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발길 따라 걸다가 도착한 곳은 인사동 어귀의 골동품 가게. 만덕스님은 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조그마한 지장보살님과 마주쳤다. 꿈 속의 스님의 목소리와 지장보살님은 딱 일치했다. 그 때서야 '이 지장보살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불타암으로 모시고 내려갔다.

봉화로 돌아온 만덕스님은 도반인 해명스님과 함께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산기도를 시작했다. 지장기도를 올린 지 삼일째 되던 날, 만덕스님의 양쪽 귀에서 고름이 터져 나오는 통증이 시작됐다. 해명스님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엉덩이까지 고름이 터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놀란 두 스님은 기도를 중단하고 동네 보건소로 가 치료를 요청했으나 병명을 알 수 없으며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만 듣게 됐다.

기이하게 생각한 두 스님은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산기도를 올리던 장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의 양쪽 귀에서 하얀 진물이 나와 어깨를 타고 엉덩이 부분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만덕스님은 바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불타암으로 내려와 정성껏 허연 진물을 지워내고 다시 법당에 모셨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스님과 해명스님의 고름과 통증은 거짓말 같이 말끔히 치유되었다.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일을 겪고 난 후 만덕스님은 지장보살님께 "다시는 밖에 모시지 않겠다"고 기도를 올렸다.

이후 지장보살님은 불자들의 소원을 성취토록 해 주는 영험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나 토굴을 찾아 온 김지곤 씨(53·대구시 남구 대명동)는 스님의 권유로 20일 지장기도를 올린 뒤 엄청난 문제가 풀려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됐다. 석남진

(38·울진군 근남면) 씨는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된 남편을 위해 불타암에서 지장기도를 올린 후 남편이 씻은 듯이 나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경우다.

이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대원정사의 지장보살님은 영험하기로 정평이 나 소원을 이루려는 인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덕스님은 불타암에서 대원정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함께 온 지장보살님의 영험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대원정사 지장보살님의 유명세는 이렇게 시작됐다.

자연에서 힘 얻는 정진도량

불타암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비룡산 자락에 2004년 5월 지금의 대원정사를 개원했다.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민가를 얻어 '대원정사' 표석을 세운 만덕스님은 불타암의 지장보살님도 함께 모셔왔다. 6월에는 삼존불을 점안해 법당의 모습을 갖췄다.

그러나 개원 3개월이 지난지만 인법당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만덕스님은 대원정사를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량으로 바꾸겠다는 원을 세웠다. 대찰로서의 대원정사가 아닌, 최소한의 시설로 불자들이 찾아와 스스로 기도정진하고 자연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원정사가 자리한 비룡산을 3km 정도 오르면 범접하기 어려운 미륵바위가 있다. 많은 무속인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렸지만, 그 때마다 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내려갈 만큼 산기운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만덕스님은 이 곳에서 일주일 철야로 미륵기도를 무사히 마치기도 했다.

그 인연으로 법당 뒤에 산신을 모셨다. 기도대상이 어디든 정성을 다한 기도라야 성취할 수 있다는 스님의 평소 생각이 산신을 불교신앙으로 섬수한 것이다.

대원정사는 자연 속의 도량이다. 법당 앞에는 무우, 배추, 옥수수, 상추 등 공양에 필요한 채소가 자라고 있고, 짙 옆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뒷산인 비룡산에서는 각종 약초와 더덕, 송이를 구할 수 있다. 대원정사를 찾는 이들은 스님과 함께 나물 캐는 일과 채소 가꾸는 일, 도량을 가꾸는 일, 가장 중요한 지장기도 등을 해야 한다. 수행 아닌 생활이 없는 삶을 살아야 자연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만덕스님은 "대원정사를 불자들의 쉼터이면서 정진을 이어가는 자유로운 도량으로 일구어 갈 것"이라며 "자연 속에서 신심을 키우고 마음을 닦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불자들이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672-9951



◇영험을 보여주시는 대원정사 지장보살님



◇삼존불



◇산신



◇법당 옆 계곡

인터뷰

대원정사 주지 만덕스님



“정진과 휴식으로 활기 얻는 열린공간 만들어요”

“내 마음의 부처를 깨워 법문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대원정사 주지 만덕스님은 달리 법문을 하지 않는다. 정성껏 기도를 하다보면 부처님이 길을 알려주기에 법문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에서 만덕스님은 세상에 지친 누구나 찾아와 기도하고 정진하는 스스로 마음을 일깨우는 도량으로서의 대원정사를 꿈꾼다. 이제 그 꿈은 현실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법당과 삼존불, 지장보살님, 산신을 여법하게 모셨고, 뒷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어 자연 속의 도량으로 변화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덕스님의 자신감은 대단하다.

“자연은 지친 육체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율매미이 없고 곁림이 없는 자유도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대원정사는 그런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1급수 도량’에서 마음의 병 고치고 행복을…

1993년 일승종에서 득도한 만덕스님은 올해로 출가 11년을 맞았다. 그러나 스님의 삶은 부처님과 인연이 지중했다고 말한다. 집 근처의 절을 놀이터 삼아 지냈던 어렸을 적 생활과 아버지의 병환을 부처님께 기도해 나온 경험을 갖고 있다. “너는 스님이 되겠구나”하는 청담스님의 말을 흘러 보내고 20여년이 지난 뒤 출가수행자의 길을 걷게 됐다.

정사를 일구는 일을 수행의 길로 삼겠다는 것이 늦깎이 스님의 마지막 서원이다.

“대원정사 옆으로 1급수 어종 벼들치가 살고 있는 물이 흐릅니다. 이곳은 때묻지 않은 자연 속의 도량인 셈이지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제 수행이예요.”

대원정사 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영주 IC → 봉화 → 소천면 삼거리에서 태백방면 3km ※ 소천면에서 전화주시면 됩니다.

대원정사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 235번지
전화 054-672-9951
만덕스님 010-4534-9533